"3선 도전 vs 저지" 민주당 집안 대결

자천타천 13명 도전장…결승같은 '공천 경쟁'

강운태 국회의원 측근들도 대거 후보군 형성

■구청장 입지자

황일봉 남구청장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소속 9명 등 모두 13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황 청장은 8년의 구정 운영 과정에서 다져온 지지기반을 내세워 3선을 자신하고 있다. 효 사랑 사업으로 노인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꾸준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고, 대한민국 친환경 도시 대상 도 받았다. 그는 이제 지식재산도시 조성과 산업기반 확충으로 남구를 '풍요롭고 머물고 싶은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호준 전 남구 부구청장은 40년 공직생활 후 강운태 의원을 보좌한 이력을 내세워 황 청장의 3선 저지를 자신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그는 18대 총선 당시 강운태 의원의 선거총괄본부장을 지냈고, 현재는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 40년간 광주시와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폭넓은 인맥이 강점인 그는 "시민들의 살림까지 챙겨주는 생활자치를 해야 한다"며 "남구를 인정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운태 의원 특별보좌역이기도 한 김만곤 남구의회 부의장도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세무사'로서의 전문성과 구의원 3선, 대촌동 '토박이'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 재개발 사업에 주력하고, 백운 고가도로 철거, 백운 로터리 인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수 강운태 의원 조직총괄본부장도 다음달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재선 구의원으로서 남구의회 운영위원장과 부의장을 지내는 등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는 "개발과 복지를 조화시켜야 남구를 최고의 자치구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호 강운태 의원 대변인은 남구의원, 광주시의원(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구 발전 견인차 구실을 하겠다며 뛰고있다. 강 의원 곁을 지키면서 쌓은 중앙과 지역의 폭넓은 인맥이 강점이다. 그는 "구청장이 되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남구를 교육 특구로 지정하게 할 것"이라며 밝혔다.

유동국 강운태 의원 보좌관의 행보는 유동적이다. 강 의원의 광주시장 출마 준비를 총괄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후보 경선에 주력한 뒤 남구 상황을 고려해 구청장 출마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광주 동아병원장은 오는 30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경선 경쟁'에 뛰어든다. 광주·전남 개혁연대 대표, 행복발전소 이사장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와 봉사활동에 힘써온 참신성을 내세우고 있다. 친절 서비스를 병원 경영에 도입한 것도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남구를 교육제일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섰다가 황 청장에게 고배를 마셨던 김화진 전 구의원이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 낙선 이후에도 교통 봉사와 나눔운동으로 재도전의 기틀을 다져왔다. 그는 "백운 광장 주변 활성화를 위해 백운 고가도로 철거하겠다"며 잘사는 남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2·3대 구의원과 4·5대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종천 시의원은 오랜 의정생활을 통해 지역사정을 누구보다 세밀하고 꼼꼼히 알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지난해 우수조례 제정 의원 상을 수상하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는 "여성·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북구 5선거구가 지역구인 이철원 광주시의원도 나선다. 그는 남구에서 20년 넘게 살아왔지만,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전략 공천으로 북구에 출마해 당선됐었다. 그는 "광주가 잘 사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문화수도, 관광산업, 기후변화 대응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이현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남구위원장은 남구를 살리려면 민주당 독선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출마했다. 남구 행정이 감성과 이미지 위주로 흐른다고 진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남구는 교육 등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사교육이 심각한 남구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독선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 상임이사도 최근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구청장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국장과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을 지냈다. 민주당 입당을 고려중이다. 그는 "변화와 혁신에 성공한 '창조의 중심자치구 남구'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2기 구청장 재임중 도중하차한 박용권 전 남구청장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그는 "남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학군이 뛰어나다"면서 "사명감을 가진 구청장이 구정을 이끌면 살기 좋은 남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남구청장 입지자

〈가나다 순〉

김만곤(53)	김영집(48)	김화진(51)	나종천(66)	박용권(60)	유동국(47)	이이현(44)	이철원(51)	이호준(61)	정재수(51)	정재훈(52)	최영호(45)	황일봉(54)
민주당	민주당 입당예정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복당 예정	민주당	민주당 복당 예정	민주당
강운태의원 특별보좌역	지역미래연구원 상임이사	광주시당 부위원장	광주시의원	오성장학재단 이사장	강운태의원 보좌관	남구위원회 위원장	광주시의원	전 남구 부구청장	강운태의원 조직 총괄본부장	동아병원장	강운태의원 대변인	남구청장

"내가 집행부 견제 적임" 10명 출사표

현역 재출마 가능성 낮아 '신인대결'

■시의원 입지자

선거구 조정으로 시의원 정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데다, 현역 의원 모두 재출마 가능성이 적어 신인도전이 활발하다.

1선거구(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의 김선문 의원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고, 2선거구(사직, 백운 1·2, 양림, 방림1·2, 봉선1동)의 나종천 의원은 구청장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1선거구에서는 조영표 남구의회 의장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무소속 2회, 열린 우리당 후보 1회 등으로 3선에 성공할 정도로 정도로 조직과 기반이 튼튼한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박준영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 특별보좌역은 1~2선거구 출마를 놓고 고심중이다. 전 새천년민주당 김중권 대표 의원 보좌관도 했던 그는 폭 넓은 중앙 인맥을 이용해 낙후된 남구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을 조율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2선거구는 김용집 민주당 남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유정심 구의원, 채선필 전 구의원 등이 격돌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사무국장은 집행부에 강력한 견제세력이 될 것을 자임했다.

유 구의원(2선)은 의료인이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복지 분야 활성화와 여성의 정당 기여도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채선필 전 구의원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3선거구(봉선 2·효덕·송암·대촌동)는 김애정 민주당 광주시당 남구지역위원회 당무기획위원장, 김병내 강운태 의원 보좌관, 신인용 구의원, 김영광·이창호 전 구의원이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9년여간 강 의원의 곁에서 '그림자' 역할을 한 김 보좌관은 탄탄한 조직력과 젊은 피를 내세워 출사표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여성의 섬세함과 소프트한 리더십을 통해 남구를 변화와 혁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을 갖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시민·교육 운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 온 김 전 구의원도 광역의원에 도전한다. 법무사인 신인용 구의원(2선)은 광주 남성의 전화 대표, 조선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4선 구의원과 구의회 의장으로 풍부한 의정경험을 갖고 있는 이창호 전 구의원도 도전장을 내고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구 시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박준영(40)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 특별보좌역
	조영표(48)	남구의회 의장
2	김용집(47)	민주당 남구지역위 사무국장
	유정심(54)	남구의회 의원
	채선필(40)	전 남구의회 의원
3	김병내(38)	강운태의원 보좌관
	김영광(44)	전 남구의회 의원
	김애정(41)	민주당 광주시당 남구지역위 당무기획위원장
	신인용(55)	남구의회의원
	이창호(57)	전 남구의회 의원

■쟁점&변수

불거지는 강운태-황일봉 '불화설'

이윤정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은?

광주 남구청장 선거 구도는 간단하지 않다.

3선 도전에 나선 황일봉 청장과 강운태 국회의원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이윤정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민주당 이외 주자의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강 의원 계열의 분화 가능성과 '한지붕 두 가족'이라는 민주당 사정이 경선 레이스의 최대 변수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남구의 후보 난립은 심각하다. 9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3명이 더 민주당에 입당 혹은 복당을 준비중이다.

지난 총선에서 황 청장과 강 의원의 '불화설'이 불거지면서 강 의원 측근들이 대거 출마 채비를 갖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양측은 '불화설'을 강력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황 청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면 무소속도 불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강 의원 측근 후보군에서도 강력한 대항마를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 자신도 광주시장 경선 출마를 향해 뛰고 있어, 어느 쪽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다.

지역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이 다른 '한지붕 두 가족'이라는 지역 특수성도 민주당 내 '공천 경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강운태 의원 계열은 내부 정리에 나서 후보 단일화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 경선 구도는 황일봉 구청장-강운태 의원 계열 후보-이윤정 지역위원장 계열 후보 등 3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시장 경선에 대비한 집안 정리를 차원에서 구청장 경선에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